

경기문화재단, DMZ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든다

'경기북부·DMZ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추진, 시범사업 공모
공공예술사업 등 진행, 일자리 창출·문화향유 기회 등 제공
(영제)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북부의 문화예술과 역사, 생태자원 보존·발굴해 살아있는 박물관인 에코뮤지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지역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명소화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더함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문화재단은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경기만에 이어 경기북부와 DMZ로 확대합니다.



에코뮤지엄(Ecomuseum)은 일정한 지역을 범주로 정해 그 지역의 주민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고, 조사 및 연구, 기획,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경기만과 DMZ, 현감수계, 원도심 등을 대상으로 경기에코뮤지엄 기본구상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6년 7월 경기도지사의 안산, 화성, 시흥 등 3개 시장이 협력한 경기만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 경기북부와 DMZ 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 활동가와 기획자,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시민주도형 에코뮤지엄 활동 및 조성 시범사업을 공모했습니다.

다음달 10일 사업 심의 및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입니다.

[인터뷰] "경기북부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조성하자는 사업인 경기북부·DMZ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약 4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북부지역 전역을 커버하는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또한 경기북부의 문화자원 활용사업과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공공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의 우수한 자연 경관이나 근대유산을 재발견하고 브랜드화시켜 주민참여형 문화적 일자리 창출과 문화향유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훈입니다.



함께 즐기는 DMZ 평화대축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9일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19 DMZ 평화대축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DMZ 평화대축제' 그림 공모전 영예의 수상자들 지난 2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린 '2019 DMZ 평화대축제'에서 '휴전선 철책에 평화를 걸다' 그림 공모전 수상자들이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남북 평화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37개 시군도 도장에서 모인 수천인 4천500여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제공

옥류관 ‘분점’ 문 열고 DMZ, 평화 공간으로

정전선언 66년 만에 북미 정상회담문점에서 만나면서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남북 자유의집에서 단독 회동을 하는 등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돌입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다.

당초 도는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트기 위한 남북평화협력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북한 옥류관 음식점 도내 유치, 파주-개성 마라톤 등 이미 북측과 합의한 사항 등도 진척되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막힌 탓이다.

현재 도는 북한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 및 묘목 지원,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참가,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헌영을 위한 국제대회’ 필리핀 공동개최,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DMZ 개최(가칭 DMZ평화페스티벌), 개성 수학여행 등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 5개 부문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아직 북미 실무진 협의가 남았지만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

협력 단계로 나아가 위해서다.

도 평화정책을 총괄하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날 인천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문화·체육·학술에 이르는 평화협력사업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차원에서 논의도 준비 중”이라며 “북미 실무협의를 잘 되서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태 국제대회에서 북측 경제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북측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활용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겠다”며 “대외적 상황과 남북관계의 급곡에도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상황에 맞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겠지만 오늘처럼 만남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지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오늘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이정표가 되길 바라고 경기도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남은 기자 bskn@incheonilbo.com